

정책투표인가, 인물투표인가?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근원 | 경성대학교

이 연구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무엇인가를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으로 나누어 판별분석을 통하여 찾아내고, 지지한 후보자에 대한 인물 판단과 자신의 정책 입장이 일치하는 유권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내고 있다.

그 결과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을 양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는 이라크 전쟁 이슈이고, 인물 이슈로서는 지도력, 정직성, 관심 따위의 이슈들도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또한 인물투표 모형보다는 정책투표 모형의 예측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이 겹치는 투표자들이 전체 투표자의 71.5%이고, 순수한 인물투표자가 10.3%, 순수한 정책투표자가 12.9%이며, 인물 요인도 정책 요인도 고려하지 않는 투표자가 5.4%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책+인물 모형” 등 종합 모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정책투표, 인물투표, 2008 미국 대통령 선거, 판별분석, 후보 선택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6757).

I. 들며

미국의 2008년 대선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책선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송근원 2008). 그렇다면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시 정책선거였을까? 미국의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정책 이슈였을까? 정말로 과거의 미국 대선에서처럼 유권자들의 정책 입장에 따라 오바마와 맥케인의 표가 갈린 것일까? 이는 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서는 인물 이슈들 역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물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을까? 실제로 후보 인성 및 자질이나 능력 등과 관련된 이슈들 역시 정책 이슈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인물 이슈들은 당선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에 관련되는 것이기에 정책 이슈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인물 이슈에 관한 연구는 정책선거 연구에 가려 그 동안 연구된 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가 정책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물 이슈들을 포함하여 이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다.

첫째, 2008년 대선에서 정책투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리고 여러 정책 이슈들 가운데, 어떠한 정책 이슈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가?

둘째, 2008년 대선에서 인물 이슈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인물 이슈가 정책 이슈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더 적게 영향을 미쳤을까? 무엇보다도 인물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가 오바마와 맥케인을 선택하는 데 가장

많이 작용하였을까?

셋째,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권자들의 후보 선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쉽게 말해서 오바마나 맥케인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투표하였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을 것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을까? 정책투표인가? 인물투표인가?

넷째, 후보들의 정책 입장과 후보들의 인물 됴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한편, 자신의 정책 입장이나 후보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고 투표를 한 ‘어린 백성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선거 이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 백성들’을 주로 정책투표의 관점에서만 연구해왔으나(송근원 2005; 2007b 및 2008; 송근원·이영·이상현 2008; 송근원·진영빈 2010), 이 연구에서는 정책투표론의 외연을 넓혀 인물투표론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을 종합하여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행위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시된 종합 모형은 정책 이슈나 인물 이슈 각각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단편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이 둘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각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투표 모형

정책투표 모형은 넓은 의미에서 정책 이슈 등의 선거 쟁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모형을 지칭하기도 하나(김용순 2009, 38), 좁은 의미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 입장과 후보의 정책 입장을 고려하여 투표한다고 보는 투표행

태 모형이다. 따라서 넓게 볼 때에는 전략적 투표 모형(strategic voting model)이나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투표 이론 등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와 자신의 정책 입장을 교량할 때, 자신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는 근접모형(proximity model)과 비록 거리가 있더라도 같은 정책 방향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방향모형(directional model)의 논쟁 역시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서 정책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블레이크스와 그의 동료들(Blais *et al* 2004)은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 이슈들과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책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톰슨(Thomsen 2004)은 덴마크의 선거를 대상으로 정당 선호도, 정당 소속감, 정책 이슈들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짓 분석을 통해 정책 이슈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고, 펜닝스(Pennings 2005)는 유권자들의 정책 우선순위와 정당 및 정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네델란드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정책 이슈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 이슈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이와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있다(송근원 2007a 및 2007b; 송근원 외 2008; 송근원·진영빈 2010; Jacobson 2006; Rabinowitz and MacDonald 2006; Abranowitz 2004; Hilygus and Shields 2005; Lewis 2005; Campbell and Monson 2006; McAdams and Weisberg 2006).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이슈들의 영향력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정책학적 관점에서 정책 이슈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슈입장이 투표선택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을 찾아낸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컨대, 인물 이슈들의 영향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둔 가장 근접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한 송근원의 연구(2007a)와 미국의 2004년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한 송근원의 연구(2007b), 2005년 뉴질랜드 총선에 관한 송

근원 외(2008)의 연구, 2006년 캐나다 총선에 관한 송근원·진영빈(2010)의 연구 등이 있다. 곧, 이들 연구는 각각의 정책 이슈가 투표 선택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 정책투표 비율, 정당간 정책 입장의 차이, 그리고 비정책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내는 연구들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투표 대상을 집단변수로, 정책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 입장들을 판별변수로 놓고 판별분석을 함으로써 예전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우회하여 좀 더 정교하게 정책투표 비율을 구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투표 모형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모형은 유권자들이 정책 이슈의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정책 입장과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실제로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의 정책 입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후보자와 자신의 정책 입장을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앞의 연구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이슈에 근거를 두고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분석에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2) 인물투표 모형

한편,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인물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곧,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는 후보자의 인물 됴됨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송건섭(2004), 조성대(2009), 윤종빈(2007; 2008), 송건섭·이부희(2008), 김용순(2009), 제코비(Jacoby 2006), 케셀(Kessel 2006), 클라크 등(Clarke *et al* 2005), 휘틀리 등(Whitley *et al* 2005), 앤더슨과 에반스(Anderson and Evans 2003), 노포스(Norpoth 1997) 등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제코비(Jacoby 2006)는 200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인물 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정책 요인, 곧 정책 입장이며, 그 다음이 업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관점에서 케셀(Kessel 2006)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2004년 대통령선거 분석에서 이슈는 케리에게, 인물은 부시에게 유리하게 작용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송건섭·이부희(2010, 21)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정책 요인 이외에도 인물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며, 김용순(2009)은 후보자가 리더십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주장하면서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후보자 선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가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문들도 인물 요인 가운데 어떠한 것이 투표 선택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인물투표 모형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 인물 모형에는 후보의 외모, 말투, 행동 양식, 성격, 지식과 같은 개인적 속성에서부터 직무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는데(Miller *et al.*, 1986), 정성호·이제영(2007)은 이를 도덕성, 신뢰도, 능력, 카리스마, 그리고 후보의 연령, 종교 등 인구학적 속성으로 나눈다. 한편, 프파우 등(Pfau *et. al.*, 1993)은 인물 요인으로서 외모, 성품, 자질과 관련된 능력으로 나누고 있으며, 마르쿠스(Markus 1882)는 개인적 능력, 성실, 청렴성 등을 들고 있다. 송건섭(2004) 및 송건섭·이부희(2008)는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 민주성, 참신성, 사회 기여도 등 후보자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쌓은 개인의 자질 면을 인물 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학연, 혈연 등 인맥에 의한 요인을 인물 외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총선과 지방선거 모두 이들 요인들이 후보자 선택에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한편 정성호·이제영(2007)은 인품 요인으로서 도덕성, 인간성, 신중함, 신뢰성을, 미래 비전 요인으로서 부의 분배 능력, 경기부양과 경제성장 능력, 국론 통합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미래 비전을, 외양 및 언변 요인으로서 나이/건강, 언변과 제스처, 외양, 정당 및 출신 요인으로 소속 정당, 출신 지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말하는 인물 요인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이렇게 많은 범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조성대(2009)는 2008년 미국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후보자의 능력(경험, 지식), 덕성(정직성, 도덕성), 그리고 애민 등의 요소들은 후보자들의 리더십을 표상하는 캠페인 슬로건과 함께 후보 선택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단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윤종빈(2007; 2008)은 후보자 요인(candidate-oriented factor)을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적 장점, 자질, 활동, 업적 등을 기반으로 한 투표를 ‘개인 지지 투표’라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들에서는 인물 요인이 비록 실제 선거 과정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미칠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인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이러한 인물투표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나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물투표 모형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정책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는데 반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물에 대한 평가는 즉흥적이고 훨씬 가변적이며, 매스컴 등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판단 결과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피상적 관찰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가 후보자 평가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기타 모형 (정당투표 모형, 업적 모형, 경제투표 모형)

이 외에도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정당투표 모형, 집권당의 업적을 보고 투표한다는 업적 모형, 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는 경제투표 모형 등이 있다.

정당투표 모형은 미국에서 1950년대 매우 중요한 투표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슈 투표에 밀려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예컨대, 하이톤(Highton, 2010), 박찬욱(1993), 조기숙(1996) 등은 정당일체감이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 별로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일체감이나 정당 소속감 등은 아직까지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Grant et al. 2010; Campbell et al. 2011). 예컨대,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 일체감이나 소속감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 일체감이나 정당 소속감이 생긴 연유를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정당의 정강이거나 정책인 경우에는 이 모형은 정책투표 모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 일체감이나 소속감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선호라고 한다면, 이는 역시 인물투표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유권자들이 지역 정서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역 변수와 겹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당투표 모형은 어떤 때는 정책투표, 어떤 때는 인물투표, 어떤 때는 지역투표 모형 등과 겹치며, 이들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할 때,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을 분석의 틀로 잡는다면 정당투표 모형에서 제시되는 변수들은 생략해도 무관하다고 본다.

한편, 업적 모형은 유권자들이 현직자 또는 집권당의 업적을 보고 투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송근원 1994). 곧, 현직자나 집권당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집권당을 선택하고, 못했다고 판단하면 야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른 바 업적에 따른 보상 처벌 모형이다.

그렇지만 이 모형은 현직자가 출마하는 경우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모형이 될 수 있으나, 현직자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띤다. 또한 현직자의 업적이 투표 행위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인물투표의 능력 요인과 정책투표의 정책 요인에서 중복되는 까닭에, 인물 모형과 정책 모형을 분석의 주 틀로 삼는 경우, 굳이 업적에 따른 보상 처벌 모형까지 분석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이외에도 경제 상황이 투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투표 모형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최귀일(2005)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후보 선택과 같은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현우(1998)는 경제투표 모형이 비경제투표 모형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블레이크스 등(Blais, et al. 2004)은 2006년 캐나다 총선을 연구하면서 정책 요인들과는 별도로 경제 요인들을 투표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놓고 그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 선택에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논문들도 있으며(김재한 1993; 박경산 1993 참

조), 경제투표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논문(Gomez and Wilson 2001)도 있고, 경제투표 모형의 불안정성을 유권자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이질성 문제로 보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집중하는 연구도 있다(Duch 2001).

이 모형은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집권당에게 표를 던지고, 나쁘면 야당에 표를 던진다는 것인데, 이 때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집권당의 업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흔히 유권자들은 경제적 호황을 집권당의 업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경제투표 모형의 많은 부분이 업적 처벌 모형과 겹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정책투표 모형에서의 경제정책 요인과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으로 볼 때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정책, 다시 말해서 미래의 경제 상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과 연결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후보 선택 요인으로서 경제 상황을 변수로 선택하는 경우, 후보들이 내세운 경제정책 변수들과 중복되는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경제투표 모형은 정책투표 모형의 경제 분야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보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분석틀에서 생략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2.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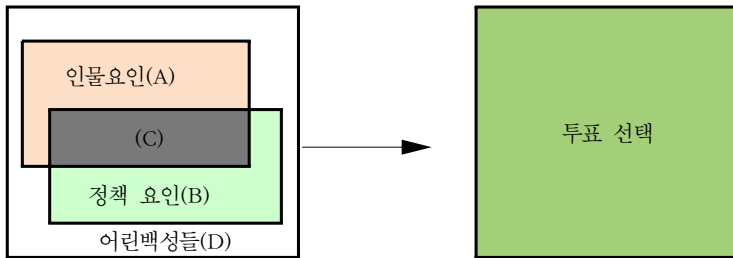
지금까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책, 인물, 정당, 업적, 경제 등의 요인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들 모두가 고려된다고 볼 수 있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요인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들 모든 요인들을 전부 망라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거나 한 두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곧,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들 가운데 어느 한 두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정책 요인과 인물 요인

으로 크게 대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정당 모형과 업적 모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책 이슈들과 인물 이슈들로 분해될 수 있고, 경제투표 모형은 정책 모형의 경제정책 이슈들과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모형들은 분석틀에서 제외한다.

이 모형에서 인물 이슈들이 미친 영향은 '(A) + (C)'로 나타낼 수 있고, 정책 이슈가 미친 영향은 '(B) + (C)'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C)는 이 두 이슈들을 함께 고려하여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A)는 총 투표자들 가운데 순수한 인물투표자의 비율을 의미하고, (B)는 순수한 정책 투표자 비율을 의미하며, (C)는 정책과 인물을 모두 고려한 유권자들의 비율이며, (D)는 정책도 인물도 고려하지 않은 투표자들인 '어린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림 1> 분석틀: 투표 행태에 미친 영향 요인들



I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및 분석 문항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미국선거연구소(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이하 ANES)에서 수집한 조사 자료(raw data) 가운데 필요한 문항들을 뽑아 연구 목적에 맞추어 조작하여 사용한다.¹⁾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내용을 훑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이슈에 관한 문항들: 분석에 사용된 정책 이슈에 관한 문항들은 정부 서비스 확충 이슈, 연방적자 이슈, 조세 이슈, 이라크 전쟁 이슈, 정부 외주 축진 이슈, 수입 제한 조치 이슈, 사회보장 기금 투자 이슈, 흑인 이슈, 여성 이슈, 이민 이슈, 동성애 이슈, 낙태 이슈, 사형제 폐지 이슈, 총기 이슈, 환경 이슈, 각종 예산 증감 이슈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 입장을 측정한 문항들이다. 이들 문항들을 연구 목적에 맞추어 조작하여 판별변수로 사용한다(조작 방법은 <부록>을 참조할 것).

② 인물 이슈에 관한 문항들: 오바마와 맥케인 두 후보의 자질 및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문항들로서 도덕성(moral), 지도력(leadership), 관심(care), 지식(knowledgeable), 지성(intelligent), 정직(honest), 낙관성(optimistic)을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이다.

이들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하여 판별변수로 사용한다. 곧, 후보의 특성과 관련된 각 문항들마다 “오바마의 점수에서 맥케인의 점수를 뺀”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었다. 예컨대, 오바마의 도덕성 점수에서 맥케인의 도덕성 점수를 빼어 도덕성에 관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새 변수는 -4부터 4의 범위를 가진 9점 척도로 변환된다. 이때 새 변수의 점수가 +인 것은 오바마가 맥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 것은 맥케인이 오바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선거에 관한 문항들: 후보 선택에 관한 문항을 사용한다. 이 문항은 판별분석에서 집단변수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군소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만을 선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1) 2012년 미국 대선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2008년 미국 대선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2012년 대선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까닭이다. 보통 ANES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선거가 끝난 다음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2012년 자료를 이용하려면 금년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electionstudies.org/study/pages/2008prepost/2008prepost.htm>).

2. 분석 절차 및 방법

1) 일차적 분석: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찾아내기 위해 일차적으로 판별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느 이슈가 2008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투표 비율과 비정책투표 비율, 인물투표 비율과 비인물투표 비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판별분석은 정준판별함수 계수값을 구하여 이를 가지고 부동층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별분석 과정에서 제시되는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값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해주는 지표로 쓸 수 있다. 곧, 투표 선택에 작용한 이슈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찾아내어 비교할 수 있다. 곧, 어떤 이슈가 투표자들을 양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판별분석 과정에서 제시되는 분류 결과는 ‘판별함수에 의해 투표가 예측된 후보’와 ‘실제로 투표한 후보’가 어느 정도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 입장이나 후보 됨됨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투표자가 투표한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을 찾아낼 수 있다. 곧, 판별분석 결과 제시되는 분류 결과표를 통하여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어린 백성들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파악된 어린 백성들의 비율을 통해 어느 모형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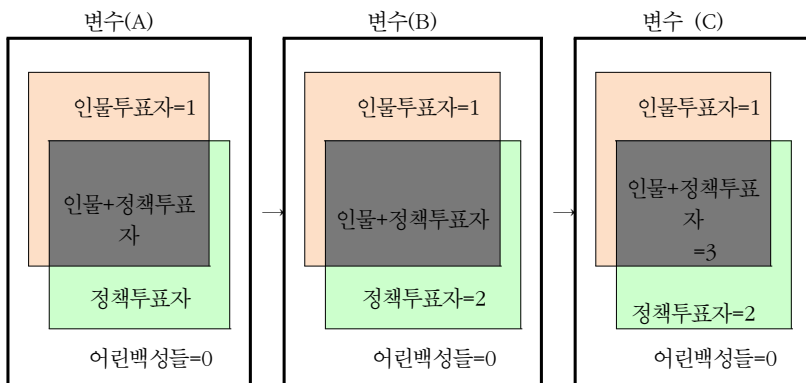
2) 이차적 분석: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의 겹친 부분 분석(중합 모형)

판별분석 결과 정책투표 모형에서 확인된 정책투표자와 비정책투표자, 그리고 인물투표 모형에서 확인된 인물투표자와 비인물투표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

수를 만들어 순수한 정책투표자, 정책투표자이자 인물투표자, 순수한 인물투표자의 비율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정책투표와 인물투표를 구분하지만, 실제 투표자들의 행태는 정책 판단과 인물 판단이 복합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차적 분석에서는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의 겹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순수한 정책투표자, 정책투표자이자 인물투표자, 순수한 인물투표자, 그리고 어린백성들의 비율을 찾아내고자 한다. 정책투표자이자 인물투표자를 나타내는 새 변수를 만드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인물+정책투표자 변수 만드는 절차



① 인물투표자들을 1, 그렇지 않은 사람을 0으로 하는 명목변수(A)를 만든다. 순수한 인물투표자와 정책투표자이자 인물투표자는 1로 이름 붙여지고, 후보 인물 평가와는 관계없이 투표한 유권자(순수한 정책투표자와 어린백성들)은 0으로 코딩된다.

② 정책투표자들을 2, 그렇지 않은 사람을 0으로 하는 명목변수(B)를 만든다. 순수한 정책투표자와 인물투표자이자 정책투표자는 2로 이름 붙여지고, 자신의 정책 입장과는 관계없이 투표한 유권자(순수한 인물투표자와 어린백성들)은 0으로 코딩된다.

③ (A)와 (B)가 겹친 부분(인물+정책투표자)에 3이라는 명목변수값을 부여한다. 인물투표자이자 정책투표자인 유권자들은 ①에서 1의 값과 ②에서 2의 값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들인 까닭에 변수 (A)와 변수 (B)의 값을 더한 값 3으로 표시된다.

④ 새 변수 (C)의 값들은 0~3의 분포를 띠게 되는데, 0='인물투표도 정책투표도 하지 아니하는 어린백성들', 1='순수한 인물투표자', 2='순수한 정책투표자', 3='인물투표와 정책투표가 겹치는 투표자'를 나타낸다.

⑤ 변수 (C)를 가지고 빈도분포를 조사하면 4종류의 투표자 비율이 드러나는 데, 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투표 모형, 인물투표 모형, '정책+인물투표 모형(종합모형)'의 유용성을 찾아내고, '순수한 어린백성들'을 찾아낸다. '순수한 어린백성들'이란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른 투표행태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인물 됴됨이를 평가하여 투표한 투표자들도 아닌 유권자를 의미한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1) 인물투표 모형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인물 이슈에 대한 입장과 그들의 투표행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집단 변수로 삼고, 후보의 도덕성, 지도력, 관심, 지식, 지성, 정직, 낙관성 따위에 대한 투표자들의 평가에 관한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산출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단계 진입에 의하여 다섯 가지 인물 이슈들이 판별함수에 포함되었는데,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에 따르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인물 이슈는 지도력 이슈이며,

〈표 1-1〉 인물 이슈의 판별분석 결과: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
 변수 단계 진입: 진입 값 3.84, 제거 2.71

| 인물 이슈들 |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값 ¹⁾ |
|------------------------------------|------------------------------|
| 지도력: 맥케인 -4 -3 -2 -1 0 1 2 3 4 오바마 | .434 |
| 정직성: 맥케인 -4 -3 -2 -1 0 1 2 3 4 오바마 | .431 |
| 관심: 맥케인 -4 -3 -2 -1 0 1 2 3 4 오바마 | .414 |
| 지성: 맥케인 -4 -3 -2 -1 0 1 2 3 4 오바마 | -.326 |
| 도덕성: 맥케인 -4 -3 -2 -1 0 1 2 3 4 오바마 | .127 |

¹⁾ 함수: 고유값 .650 정준상관 .628

함수의 검정: Wilks 랏다=.606 카이제곱681.078 자유도 5 유의 확률 0.000

그 다음이 정직성 이슈이고, 그 뒤를 이어 관심, 지성, 도덕성 이슈가 차례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력, 정직성, 관심 따위의 영향력은 서로 비슷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계선택법에 의하여 제외된 다른 이슈들, 곧, 지식과 낙관성은 통계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별분석의 결과 제시된 분류결과표 〈표 1-2〉는 예측 소속 집단에 대한 판별의 정확도가 81.7%임을 보여준다. 곧 오바마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여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55%이고, 맥케인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여 맥케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26.7%임을 보여준다.

〈표 1-2〉 인물 이슈별 판별분석 결과: 분류 결과

| 투표 예측 후보 / 실제 투표 후보 | 오바마 | 맥케인 | 전체 |
|---------------------|------------|------------|-------------|
| 오바마 | 847(55.0%) | 178(11.6%) | 1025(61.7%) |
| 맥케인 | 103(6.7%) | 411(26.7%) | 514(33.4%) |
| 합계 | 950(61.7%) | 589(38.3%) | 1,539(100%) |

*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1.7%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체 투표자 가운데 11.6%는 맥케인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오

바마 후보에게, 6.7%는 오바마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맥케인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자신이 더 낫다고 평가한 후보가 아니라 못하다고 평가한 후보에게 투표한 ‘비인물투표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18.3%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비인물투표자’는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 투표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투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정책투표 모형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이슈입장과 투표행태가 얼마나 일치하였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집단 변수로 삼고 정책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서른네 개의 정책 이슈 입장에 관한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판별분석을 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정책 이슈의 판별분석 결과: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

변수 단계 진입: 진입 값 3.84, 제거 2.71

| 정책 이슈들과 측정값 |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값 ¹⁾ |
|----------------------------------|------------------------------|
| 이라크 전쟁의 가치: 없다 0 1 있다 | .500 |
| 정부서비스 확충 여부: 줄여야 1~7 늘려야 | -.289 |
| 흑인 원조: 정부 도움 1~7 흑인 자립 | .283 |
| 이라크 전쟁 테러 위협: 감소 1 2 3 증가 | -.246 |
| 동성애 차별 금지: 적극 찬성 1~5 적극 반대 | .240 |
| 흑인 불공정 대우: 정부 개입 1~5 안 개입 | .207 |
| 국방예산: 줄여야 1~7 늘려야 | .176 |
| 중세에 의한 적자 감소: 적극 반대 1~7 적극 찬성 | -.133 |
| 연방 적자 감소 조치: 적극 반대 1~7 적극 찬성 | .129 |
| 아동보호 예산: 늘려야 1~8 완전 삭감 | .128 |
| 군비 이외 감소로 적자 감소: 적극 반대 1~7 적극 찬성 | .101 |

¹⁾ 함수: 고유값 1.063 정준상관 .718

함수의 검정: Wilks 랏다=.485 카이제곱623.196 자유도 11 유의 확률 0.000

〈표 2-1〉에 따르면 단계 진입에 의하여 열한 가지 정책 이슈들이 판별함수에 포함되었는데,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에 따르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는 이라크 전쟁 이슈이다. 그 다음이 정부 서비스 확충 이슈이고, 그 뒤를 이어 흑인 원조 이슈, 이라크 전쟁 테러 위협 이슈, 동성애 차별 금지 이슈, 흑인 불공정 대우 이슈, 국방 예산 이슈, 증세에 의한 적자 감소 이슈, 아동보호 예산 이슈, 군비 이외 감소로 적자 감소 이슈가 차례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이슈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이라크 전쟁 이슈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값이 .5로 다른 어떤 정책이슈들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근원(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라크 전쟁 이슈가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2004년 미국 대선에서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라크 전쟁 이슈가 2008년 선거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을 뭉뚱그려 보면, 주로 대외전쟁에 관한 이슈들과 소수자 보호 이슈 및 재정적자 이슈들이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별분석에서 제외된 다른 이슈들, 예컨대, 여성 이슈, 총기 이슈, 사형제 이슈 등의 사회적 이슈와 정부 외주 축소 이슈, 수입 제한 이슈, 사회보장 기금 투자 이슈 등 경제 관련 이슈 및 환경 이슈 등이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2008년 미국 대선은 대외전쟁 이슈들과 동성애, 흑인 등 소수자 보호 이슈 및 재정 적자 이슈가 투표자를 양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판별분석 결과 제시된 분류결과표 〈표 2-2〉는 예측 소속 집단에 대한 판별의 정확도가 84.3%임을 보여준다. 곧 오바마 후보의 정책 이슈 입장에 동조하여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58.9%이고, 맥케인 후보의 이슈 입장에 동조하여 맥케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25.4%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정책 입장에서 볼 때 전체 투표자 가운데 7.7%가 맥케인 후보에 투표해

〈표 2-2〉 정책 이슈별 판별분석 결과: 분류 결과

| 투표 예측 후보 실제 투표 후보 | 오바마 | 맥케인 | 전체 |
|----------------------|-------------|------------|-------------|
| 오바마 | 907(58.9%) | 118(7.7%) | 1025(66.6%) |
| 맥케인 | 123(8.0%) | 391(25.4%) | 514(33.4%) |
| 합계 | 1030(66.9%) | 509(33.1%) | 1539(100%) |

*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4.3%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야 함에도 오바마 후보에게, 8%가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해야 함에도 맥케인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자신이 고려한 정책 이슈 입장과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지지자를 밝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분석해 볼 때 15.7%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15.7%에는 후보들의 인물 됴됨이를 고려한 투표자와, 기타 다른 어떤 요인을 고려한 투표자가 포함되어 있다.

3.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의 비교

인물투표 모형의 예측력은 81.7%이며, 정책투표 모형의 예측력은 84.3%이다 (〈표 1-2〉와 〈2-2〉 참조). 이를 볼 때 정책투표 모형이 인물투표 모형보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행태를 더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모형이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정책투표 모형이 인물투표 모형보다 투표자들의 투표 행태를 좀 더 잘 설명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인 까닭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정책투표 모형이 인물투표 모형보다 더 예측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²⁾

2) 한편, 여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인물투표와 정책투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물 모형이나 정책 모형은 이론상의 구분일 뿐, 실제 투표행태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복합되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둘의 겹친 부분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결론의 일반화 가능성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2012년도 미국 대통령선거 자료가 공개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의 겹친 부분 분석

정책투표 모형과 인물투표 모형의 겹친 부분은 다음 <표 3-1>을 보고 분석할 수 있다. 곧, 응답자 1,539명 중 A에 해당하는 순수한 인물투표자는 158명이고, 이는 유효 투표자 중 10.3%를 차지한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순수한 정책투표자는 198명이고, 이는 유효 투표자 중 12.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C에 해당하는 인물 이슈에 대한 투표자의 입장과 정책 이슈에 대한 투표자의 입장이 후보 선택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1,100명으로 71.5%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D에 해당되는 인물과 정책 요인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어린백성들은 83명으로 이는 유효 투표자 중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투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인물 이슈나 정책 이슈에서 후보자와 같은 입장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곧, 10명 중 7명 정도는 인물 평가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후보와 자신의 정책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이 겹치는 이유가 밝혀진 바는 없다. 인물-정책 동일시인지 정책-인물 동일시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곧, 투표자의 후보에 대한 인물 판단이 투표자의 정책 입장에 영향을 미칠

<표 3-1> 투표자 유형

| 투표자 유형 | 빈도 | 퍼센트 |
|--------------|--------|--------|
| 순수 인물투표자 (A) | 158명 | 10.3% |
| 순수 정책투표자 (B) | 198명 | 12.9% |
| 인물+정책투표자 (C) | 1,100명 | 71.5% |
| 어린 백성들 (D) | 83명 | 5.4% |
| 합계 | 1,539명 | 100.0% |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인물과 정책 입장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일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 속에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뒷날로 미룬다.

어찌되었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물 요인을 고려하던 정책 요인을 고려하던 둘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한 유권자가 대부분(94.6%)임을 알 수 있다. 곧, 인물 판단이든 정책 판단이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여 투표한 유권자는 94.6%에 해당하며, 자신의 인물 판단이나 정책 판단에서 벗어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진짜 어린 백성들’은 5.4%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표행태 모형들 가운데, 인물 모형과 정책 모형의 두 가지 모형을 종합한다면, 투표자 대부분의 후보 선택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판별분석을 통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었다. 또한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이 미국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을 어느 정도나 판별해내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이 두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하였고, 이 두 모형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투표자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인물투표와 정책투표가 일치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을 찾아내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투표의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이슈는 지도력 이슈이며, 그 다음이 정직성 이슈이고, 그 뒤를 이어 관심, 지성, 도덕성 이슈가 차례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슈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하나가 다른 이슈들에 비해 월등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다.

둘째, 정책투표의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정책 이

슈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라크 전쟁 이슈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투표자들의 후보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미국의 대외전쟁 관련 이슈, 소수자 보호 이슈, 그리고 재정 적자 이슈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물투표 모형의 예측력은 81.7%이며, 정책투표 모형의 예측력은 84.3%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에는 정책투표 모형이 인물투표 모형보다 조금 더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 이슈가 인물 이슈보다 2008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행위를 더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모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두 모형에서 나온 판별분석 결과를 가지고 미국의 투표자들을 분류해본 결과, 순수한 인물투표자는 10.3%, 순수한 정책투표자는 12.9%, 정책과 인물 요인이 일치하는 투표자는 71.5%이며, 인물 요인도 정책 요인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린 백성들은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투표 모형이나 인물투표 모형 등이 투표 행태의 일부를 설명해주는 것은 하나 단편적인 이론에 그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들이 복합된 상태에서 투표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책+인물 모형” 등 종합 모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투표 행태 연구가 인물, 정당, 정책, 업적, 경제 등 어떤 하나 또는 두 개의 요인에 국한하여 진행되어왔던 것을 탈피하여 첫째,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을 비교하였다는 점, 둘째, 이 두 모형을 종합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투표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투표 행태의 분석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린 백성들’의 개념을 좀 더 정치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행태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비록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 연구에서 시도한 인물투표 모형과 정책투표 모형의

비교 및 이 두 모형의 겹친 부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 투표 행태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곧, 이 연구는 투표자의 투표행태 모형을 종합화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 판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어떤 투표행태 모형이 더 유용한 것인지를 분석해내고, 이차적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종합모형을 만들어 이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투표 모형이나, 비합리적 요인 모형, 업적-치별 모형 등을 가지고 이들 사이의 겹친 부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 정당투표 모형이나 비합리적 투표 모형(지연, 학연, 인연 등)을 덧붙여 이들이 겹치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종합모형을 찾아낼 수 있다. 곧, 이차적 분석에서 새 변수를 만들 때 인물투표 모형 0, 1, 정책투표 모형 0, 2, 정당투표 모형(또는 비합리적 투표 모형) 0, 4로 코딩하여 이들을 합해 새 변수를 만들면, 0,1,2,3,4,5,6,7의 일곱 가지 투표행태 유형이 나오며, 이를 분석할 경우 어떠한 투표행태 모형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한 것인지, 어느 정도나 투표행태 모형들이 서로 겹치는지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미룬다.

나아가 순수한 정책투표자와 인물투표자, 그리고 ‘인물+정책투표자’ 및 ‘인물투표도 정책투표도 아닌 어린백성들’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 투표행태를 보이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또한 2012년 미국 대선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 작업 역시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용순. 2009. “후보자의 이미지와 유권자의 선택: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4: 36-66.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재한. 1993. “제 14대 대선과 한국 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7(1): 99-120. 한국정치학회.
- 박경산. 1993.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7(1): 185-208. 한국정치학회.
- 박찬욱. 1993.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서울: 나남.
- 송건섭. 2004. “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 6.13 지방선거(2002)와 4.15총선(2004) 비교.” 『지방정부연구』.
- 송건섭 · 이부희. 2008.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 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5-30. 한국지방자치학회.
- 송근원. 1994. 『선거정치론』.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송근원. 2005. ““어린 백성들”이 16대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 『지방정부연구』 9(2): 227-249. 한국지방정부학회.
- 송근원. 2007a. “미국의 어린 백성들과 이들의 특성: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1): 1-22.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근원. 2007b.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에 관한 연구: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239-254. 한국정책학회.
- 송근원. 2008. “유권자들의 정책 지향 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24(1): 81-109.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근원 · 이영 · 이상현. 2008. “정책지향형 투표자는 누구인가?: 2006 캐나다 총선을 대상으로.” 『국가전략』 14(3): 141-167. 성남: 세종연구소.
- 송근원 · 진영빈. 2010. “정책과 투표 선택: 2005년 뉴질랜드 총선을 대상으로.” 『국가전략』 16(1): 153-186. 성남: 세종연구소.
- 윤종빈. 2007. “2007 대선과 수도권 투표 성향: 지역, 이념, 그리고 인물.” 『한국정당학회보』 6(2): 65-95. 한국정당학회.
- 윤종빈. 2008.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1(1): 59-8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 중심으로. 109-112. 서울: 푸른 길.
- 정성호·이제영. 2007. “후보자의 자질 및 이슈가 투표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6: 43-79.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
- 조성태. 2009. “미국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 후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정치학회보』 43(2): 193-214.
- 최귀일. 2005. 『경제인식과 투표결정에 관한 연구: 제 14, 15, 17대 총선, 제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ramowitz, Alan. 2004. “Terrorism, Gay Marriage and Incumbency: Explaining the Republican Victory in the 2004 Election.” *The Forum* 2(4): Article 3.
- Andersen, Robert and Geoffrey Evans. 2003. “Who Blairs Wins? Leadership and Voting in the 2001 Election.” *British Elections & Parties Review*, 13: 229-47.
- Blais, Andr ee, Mathieu Turgeon, Elisabeth Gidengil, Neil Nevitte and Richard Nadeau. 2004. “Which Matters Most? Comparing the Impact of Issues and the Economy in American, British and Canadian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555-563.
- Campbell, David E., John C. Green and Geoffrey C. Layman. 2011. “The Party Faithful: Partisan Images, Candidate Religion, and the Electoral Impact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1): 42-58.
- Campbell, David E. and J. Quin Monson. 2006. “The Religion Card: Gay Marriage and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4,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campbell_religion.pdf (검색일: 2006.7.14).
- Clarke, Harold, David Sanders, Marianne Stewart and Paul Whiteley. 2006. “Taking the Bloom off New Labour's Rose: Party Choice and Voter Turnout in Britain, 2005.”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16: 3-36.
- Duch, Raymond M. 2001. “A Development Model of Heterogeneous Economic Voting in New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895-910.
- Gomez, Brad T. and J. Matthew Wilson. 2001.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Economic Vot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 Theory of Heterogeneous Attribution.”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899-914.
- Grant J. Tobin, Stephen T. Mockabee and J. Quin Monson, 2010. "Campaign Effects on the Accessibility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3(4) 811-821.
- Hillygus, D. Sunshine, and Todd G. Shields. 2005. "Moral Issues and Voter Decision Making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2): 201-209.
- Jacobson, Gary C. 2006. "The Iraq War and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jacobson_war.pdf
 (검색일: 2006.7.14).
- Jacoby, William. 2006. "Ideology in the 2004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jacoby_ideology.pdf (검색일: 2006.7.14).
- Kessel, John. 2006. "Structures of Vote Choice: The Context of the 2004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kessel_structure.pdf (검색일: 2006.7.14).
- Lewis, Gregory B. 2005. "Same-sex Marriage and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2): 195-199.
- Markus, G. B. 1982. "Political Attitudes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3): 538-560.
- McAdams, Erin and Herb Weisberg. 2006. "Moral Values in the Ohio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mcadams_weisberg.pdf (검색일: 2006.7.14).
- Miller, A. H., M. P. Wattenberg and O. Malanchuk, 1986. "Schematic Asse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21-540.
- Norpoth, Helmut. 1997. *Confidence Regained: Economics, Mrs. Thatcher, and the*

- British Voter*.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ennings, Paul. 2005. "Parties, Voters and Policy Priorities in the Netherlands, 1971-2002". *Party Politics* (Jan). Vol qq, Issue 1: 29-45.
- Pfau, M., T. Diedrich, K. M. Larson and K.M. Van Winkle. 1993. "Relational and Competence Percep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during Primary Election Campaign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7(3): 275-292.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Macdonald. 2006. "Bush vs. Kerry: Policy Issues in the 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http://psweb.sbs.ohio-state.edu/wartime_election/papers/rabinowitz_issues.pdf (검색일: 2006.7.14).
- Thomsen. 2004. "Individual Voting Behavior in Denmark 1998-2001: Confirming as Directional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ril 15-18, 2004, Chicago IL.
- Whiteley, Paul, Marianne Stewart, David Sanders and Harold Clarke. 2005. "The Issue Agenda and Voting in 2005". in Pippa Norris and Christopher Wlezien, eds., *Britain Voters 20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ttp://www.electionstudies.org/studypages/2008prepost/2008prepost.htm>(검색일: 2010.3.1.~2011.2.10).

| |
|---|
| 투고일: 2013.08.12 심사일: 2013.10.04 게재확정일: 2013.10.07 |
|---|

<부록> 설문서 문항 및 판별분석 변수의 조작

자료 출처: 2008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참고: 괄호 안은 ANES 설문서의 설문 번호에 부처진 변수 이름임

집단 변수

- 투표한 후보(V085044a): 원래 ‘버락 오바마’=1 ‘존 맥케인’=2 ‘다른 사람’=7로 측정 되었으나, 판별분석 결과를 두 후보를 비교하기 위함이니 ‘버락 오바마’=1 ‘존 맥케인’=2에 투표한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함.

판별 변수 1: 인물 관련 변수들

- 조작한 인물 관련 변수들은 도덕성(moral_O_M), 지도력(leader_O_M), 관심(care_O_M), 지성(intel_O_M), 정직(hon_O_M), 낙관(opt_O_M)의 일곱 가지이다.
- 두 후보들의 인물 관련 변수들은 1=‘정말 그렇다’ 2=‘매우 그렇다’ 3=‘그렇다’ 4=‘그런 편이다’ 5=‘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오바마의 점수에서 맥케인의 점수를 빼어 -4부터 4의 범위를 가진 9점 척도로 변환한 새로운 인물 관련 변수들을 사용한다.

판별 변수 2: 정책 관련 변수들

1. 정책 기조

- 정부 서비스 확충 여부(G_ser): 1=‘완전 줄여야 한다’ 2=‘약간 줄여야 한다’ 3=‘줄여야 한다’ 4=‘그대로 두어야 한다’ 5=‘늘려야 한다’ 6=‘약간 늘려야 한다’ 7=‘완전 늘려야 한다’로 분류하였다.

2. 재정 정책

- 모형에 포함시킨 재정정책 관련 변수들은 연방 적자 감소 조치(V085074x_1), 증세로 적자 감소(V085075x_1), 국방비 삭감으로 적자 감소(V085076x_1), 군비 이외 예산 삭감에 의한 적자 감소(V085077x_1)의 네 가지 변수들이다.
- 이들 변수들은 모두 1='적극 찬성' 2='약간 찬성' 3='찬성' 4='중립' 5='반대' 6='약간 반대' 7='적극 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조세 정책

- 모형에 포함시킨 조세정책 관련 변수들은 누진세(부자증세: V083152_1)과 대기업 증세(V083153_1)에 대한 입장을 묻는 두 가지이다.
- 이들 변수들은 모두 1='높은 비율' 2='같은 비율' 3='낮은 비율'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대외 정책

- 이라크 전쟁의 가치(V083103_1): 0='없다' 1='있다'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이라크 전쟁 테러 위협(V083104_1): 1='감소' 2='같은 수준' 3='증가'로 조작하였다.

5. 경제정책

- 정부의 외주 촉진(V083103x): 1='적극 찬성' 2='찬성' 3='중립' 4='반대' 7='적극 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수입 제한 조치(V085081_1): 1='찬성' 3='중립' 5='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

하였다.

6. 복지정책 및 사회적 이슈

- 사회보장기금 주식투자(V085104x): 1=‘적극 찬성’ 2=‘찬성’ 3=‘중립’ 4=‘반대’ 7=‘적극 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흑인 원조(V083137): 1=‘정부가 흑인을 도와줘야’에서부터 7=‘흑인들 스스로 도와야’의 7점 척도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흑인 불공정 대우(G_black): 1=‘정부의 강력 개입’ 2=‘약한 강력 개입’ 3=‘관심 없다’ 4=‘약한 안 개입’ 5=‘강력 안 개입’으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여성 평등 및 특혜 요구(085136), 여성 성차별 있음(085137), 해외 이민자 수 늘림(085082) 문항들은 모두 1=‘적극 찬성’ 2=‘찬성’ 3=‘중립’ 4=‘반대’ 5=‘적극 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동성애(종합)(homo1): 동성애 이슈를 구성하는 문항은 4개 문항이다. 그 중 동성애 법률로 차별금지(V083211x), 동성애자 군 복무(V083212x) 문항은 1=‘적극 찬성’ 2=‘찬성’ 3=‘중립’ 4=‘반대’ 5=‘적극 반대’로, 동성애부부 입양 허용(V083213) 문항은 1=찬성, 5=반대, 동성애부부 결혼 허용 문항(V083214_1)은 1=찬성, 3=중립, 5=반대로 리코딩한 후, 이들을 합한 평균을 내어 1~5점의 동성애(종합)(homo1)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살인자 사형(V083163xx) 문항은 1=‘적극 찬성’ 2=‘찬성’ 3=‘반대’ 4=‘적극 반대’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총기 구입 규제(V083164_1) 문항은 1=‘더 어렵게’ 2=‘현재대로’ 3=‘더 쉽게’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7. 환경 이슈

- 환경 규제 문항(env)은 1=‘적극 찬성’ 2=‘찬성’ 3=‘중립’ 4=‘반대’ 7=‘적극 반대’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8. 각종 예산 증감 이슈

- 예산 증감을 묻는 이슈들은 국방 예산(def-bud), 고속도로 예산(V083140x), 사회보장 예산(V083141x), 공립학교 예산(V083142x), 과학기술 예산(V083143x), 범죄방지 예산(V083144x), 복지 예산(V083145x), 아동 보호 예산(V083146x), 대외 원조 예산(V083147x), 영세민 보호 예산(V083148x), 국경 수비 예산(V083149x), 대테러전쟁 예산(V083150x), 환경예산(V083151x)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이들 가운데, 국방예산(def-bud)은 1=‘줄여야’, 7=‘늘려야’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예산들은 1=‘늘려야’, 8=‘완전 삭감’의 8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예산(def-bud)은 1=‘줄여야’, 7=‘늘려야’의 7점 척도를 사용하고, 다른 예산들은 모두 1=‘아주 많이 늘려야’ 2=‘비교적 많이 늘려야’ 3=‘조금 늘려야’ 4=‘지금과 같이’ 5=‘조금 줄여야’ 6=‘비교적 많이 줄여야’ 7=‘아주 많이 줄여야’ 8=‘완전 삭감해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ABSTRACT】

Policy Voting, or Traits Voting? In the 2008 USA Presidential Election

Song, Keun Won |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issues which affect the U.S. voters polarized when choosing a candidate as their President. Discriminant analysis shows that Iraq war issue is the most influencing one among the policy issues. Leadership, honesty, care of the candidates are also the issues affecting the choice behavior of the voters.

The policy issue-based ballot model is more useful to explain the voters' behavior than the candidate's traits-based model. The combined model of the two can explain the U.S. voters' behavior about 94.6%, in which pure policy voters are 12.9%, pure candidate's traits-based voters are 10.3%, voters considering both policy-stands and candidates' traits are 71.5%, while 'eorin people' who votes based neither on their policy stands nor on the evaluation of the candidates' traits are only 5.41%. This fact suggests the combined model is more realistic than any other unique model.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findings.